

가정환경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 인과 모형 분석*

The Relationship of Home Environments to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
Analysis of a Causal Model

장 영 애**
Jang, Young Ae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of home environment variables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Two studies were conducted ; Study I examined ① the correlation of home environment variables and children's social ability and ② the predictability of home environment variables for children's social ability by children's age. Study II investigated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which are supposed to affect children's social abili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40 children at age four, six and eight attending nursery schools, kindergartens and elementary schools and their mothers. Instrumants included the Inventory of Home Stimulation (HOME), the Inventory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social maturation scale, and the social-emotional developmental rating scale.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

- 1) Home environment variable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t age four and six, but at age eight, only HOME variabl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 2) The home environmental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predicte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differed according to children's age. That is, play materials, economic status of the home, and parent education were predictive of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t age four, while parent's education, fostering maturity and independence, and play materials were predictive at age six. Fostering maturity and independence, aspects of physical environment, and economic status of the home were predictive at age eight.
- 3) The causal model of home environment effect on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was formulated by exogenous variables (parent education and economic status of the home) and endogenous variables (direct stimulation, indirect stimulation and the emotional climate of the home).
- 4)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ausal model showed that the variables that have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differed according to children's age. That is, direct stimulation had more effect on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t earlier ages, and indirect stimulation had more effect on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t later ages. Among socio-demographic variables, parent's education was most closely related to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The amount of variance that explaine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decreased with increase in children's age.

* 본 연구는 1986년 12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인천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I. 서 론

인간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 변인 중 가정환경은 인간과 출생시 부터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성장 발달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정환경과 아동의 발달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가정환경이 아동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들어 이영(1980)은 7주에서 3세까지 아동의 성격 및 사회성 발달과 가정환경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이 두변인은 .74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Sameroff 와 Seifer(1983)는 사회정서적 능력에 관계되는 가정의 위험요소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지적 결합이 16%, 사회적 지위가 10%, 부모의 기대가 4% 정도 아동의 사회 정서적 능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rdy - Brown, Plomin과 DeFries(1981)는 1세된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관계되는 변인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 부모가 아동의 반응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가의 여부가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에 가장 중요하게 관계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의 변인중 어떤 변인은 근인(近因)으로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하면, 또 어

떤 변인은 원인(遠因)으로서 간접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들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단순히 두 변인간의 관계만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아동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앞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을 이해하고 예언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매우 의의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은 과학적 연구에서는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행동과학도 과학의 한 분야로서 과거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질문은 변인들간 인과의 관계성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느 변인이 어떤 변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떤 현상, 또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면 우리는 그러한 현상이나 사건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예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 어떤 현상, 또는 사건을 통제하고자 할때에도 인과관계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인과관계의 개념에 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그 개념의 정의가 다양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하나의 사건발생이 다른 사건의 발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때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이은해, 1985). 즉, 인과관계의 진술문에는 원인과 결과의 두 요소가 있어서 어떤 한 변인 X가 다른 변인 Y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엄격히 통제된 실험조건 하에서 실험자가 독립변인을 조작

하고 이 독립 변인의 조직여하에 따라 종속변인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험 연구에서 인과관계의 규명이 가능하다. 반면 비실험적 연구에서처럼 독립변인 이외의 변인의 작용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찰된 자료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은 엄밀한 의미에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 실험적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인과관계를 추리할 뿐이다.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결과를 가지고 연역적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행로분석(Pathanalysis)이 있다(Li, 1975). 행로분석은 일종의 구조화된 회귀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회귀분석이 예측에 중점을 둔 반면에 행로분석은 변인들간의 관계를 직접하게 설명하는데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행로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가정환경의 다양한 변인들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 특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밝히고, 이러한 관계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의 인과모형을 개념적으로 설정한 다음, 이러한 인과모형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상의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환경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다각적이며 심층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므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신장시켜 주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 I 과 연구 II로 대별되는데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를 연구 I 과 연구 II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신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I 에서 제기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둘째, 가정환경의 다양한 변인중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더욱 밀접하게 관계되는 변인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 II에서 제기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의 개념적 인과모형은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

둘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의 인과모형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 되는가?

II. 연구 I

1. 연구내용 및 가설

연구 I에서는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분석하고, 또한 여러 다양한 가정환경 변인중에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특별히 관계되는 변인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I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과 사회적 능력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II :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의의있게 예언해 주는 가정환경 변인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4세, 6세, 8세 아동 240명과 그들의 어머니 240명으로 총 480명이다. 연구대상을 만 4세, 6세, 8세로 정한 이유는 이들 연령층이 초기 아동기중 비교적 같은 종류의 검사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연령에 따른 변화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연구 대상 아동수는 <표 1>과 같다.

< 표 1 >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연구 대상 아동수

연령 (연령범위)	남	여	합 계
4세 (4 : 0 ~ 4 : 8) *	40	40	80
6세 (6 : 0 ~ 6 : 6)	40	40	80
8세 (8 : 0 ~ 8 : 5)	40	40	80
합 계	120	120	240

* 연령범위는 검사일을 기준하여 산출되었음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와 가정환경 변인을 측정하는 도구, 2가지로 대별된다.

(1) 사회적 능력 측정도구

사회적 능력 측정도구로는 사회성숙도 검사와 사회정서적 발달 평정척도가 선정되었다. 이 두검사는 비교적 사회적 능력의 다양한 개념을 측정할 수 있고, 가정, 유치원, 학교등의 다양한 사태에서 사회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서 본 연구의 도구로 선정하였다.

① 사회성숙도 검사(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76) : 사회성숙도 검사는 Doll이 제작한 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을

번안하여 우리나라 아동에게 맞게 수정한 것이다. 이 검사는 0세부터 12세까지의 한국 아동의 사회적 성숙을 나타내고 있는 총 13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7개의 하위영역 즉, 의사 전달하기,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놀이하기, 운동하기, 스스로 하기, 혼자 음식먹기, 혼자 옷입기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 4세 부터 8세 아동에 해당되는 문항 41개를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을 수정한 다음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부모와의 면접을 통해 ‘예’, ‘아니오’로 측정되었고 ‘예’인 경우는 1점, ‘아니오’인 경우는 0점의 점수가 주어졌다.

② 사회정서적 발달 평정척도: 이 검사는 1978년에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한 5단계 평정척도로서 5개의 하위변인, 즉 내적 통제, 다른 아동과의 원활한 상호관계, 학교에서의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문항수는 50개이나 본 연구에서는 만 4세와 6세 아동용으로 각 하위변인 별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8개씩 선정하여 총 4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선정된 문항은 유치원 교사 2명에 의해 문항 수정이 이루어졌고, 역시 같은 아동을 담당하는 2명의 유치원 교사에 의해 평정자간 신뢰도가 산출되었다. 2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산출된 평정자간 신뢰도는 각 하위요인 별로 .63 ~ .79의 상관을 보였으며 전체 신뢰도는 .78로 나타났다.

만 8세 아동용 사회정서적 발달 평정척도는 취학전 아동용 사회정서적 발달척도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의 수준에 맞게 문항을 수정한 것이다. 하위변인은 내적 통제, 다른 아동과의 원활한 상호관계, 성취동기, 호기심의 4요인으로 구성되며, 문항은 각 하위요인 별로 7개씩 구성되어 총 2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선정된 28개의 문항은 국민학교 교사 4명에 의해 적절성여부가 검토되었다.

본 연구의 사회적 능력 점수는 위의 2가지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의 합으로 이루어졌다. 즉, 사회성숙도 점수와 사회정서적 발달 평정척도의 점수를 각각 2점으로 환산한 다음 이들 점수를 합하여 사회적 능력 점수를 산출하였다.

(2) 가정환경 변인 측정도구

가정환경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에는 2가지 종류의 HOME과 사회인구론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가 포함된다.

(1) 취학전 아동용 HOME(만 4세, 6세 아동용)

이 검사는 장영애(1981)에 의해 번안되어 타당화 연구(이은혜, 장영애, 1982)가 이루어진 검사이다. 이 검사는 본래 9개의 하위변인, 총 1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은혜와 장영애(1982)의 연구 결과에 의해, 반응률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문항, 문항변별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하면 76개의 문항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76개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alpha = .89$ 로 나타났고, 반분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76개의 문항을 기초로 하여 문항수가 너무 적은 하위변인의 문항을 보완하여 총 88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9개의 하위변인 및 하위변인별 문항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이 검사는 부모와의 면접에 의해 '예' '아니오'로 측정되었고 '예'인 경우는 1점의 점수가 주어졌다.

(2)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용 HOME(만 8세 아동용)

이 검사는 장영애(1984)에 의해 번안되어 타당화 연구를 거친 검사로서 취학전 아동용 HOME과 마찬가지로 9개의 하위변인으로 이루어지고 총 1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영애(198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97개의 문항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는 α 계수가 .92, 반분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97개의 문항을 기초

로, 문항수가 적은 하위변인의 문항을 보완하여 총 10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표 2〉 취학전 아동용 HOME의 하위 변인 및 문항수

하 위 변 인	문 항 수
1.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	6
2. 발달을 위한 자극	8
3. 언어적 환경	7
4.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정도 및 허용성	8
5. 독립성의 육성	8
6. 정서적 분위기	12
7. 경험의 다양성	10
8. 환경의 물리적 측면	15
9. 놀이 자료	14
전 체	88

③ 사회인구론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

이 질문지에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수준에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을 점수화하여 이들 점수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김영모(1969), 이은해와 조진형(1984)의 연구를 참고로하여 다음 〈표 3〉과 같은 기준에 의해 평가되었다.

〈표 3〉 부모교육수준 평점기준

학 력	평 점
대학원 졸업	7
대학교 졸업	6
대학중퇴 및 전문대졸	5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4
중학교 중퇴 및 졸업	3
국민학교 졸업	2
무 학	1

가정경제 수준은 월수입, 월생활비, 문화시설물, 세가지 점수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월수입과 월생활비는 역시 김영모(1969)와 이은해등(1984)의 연구를 참고로 〈표 4〉와 같은 기준에 의해 각각 점수화 되었다.

〈표 4〉 월수입과 월생활비 평점 기준

월수입 (월생활비)	평점
101 만 이상	7
71 만 ~ 100 만	6
51 만 ~ 70 만	5
31 만 ~ 50 만	4
21 만 ~ 30 만	3
11 만 ~ 20 만	2
0 ~ 10 만	1

문화시설물은 가정내의 9 가지 문화시설의

유무를 조사하여 각 1점씩의 점수가 주어졌다. 조사한 시설물의 종류에는 칼라TV, 냉장고, 자동차, VTR, 피아노, 세탁기, 전화, 진축, 백과사전이 포함된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의해 가정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점수는 월수입을 평정한 점수, 월생활비를 평정한 점수, 문화시설비를 평정한 점수의 합으로 이루어졌다.

3) 절차

본 연구의 자료가 수집되기 전에 검사 도구의 적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예비조사가 실시되었다. 가정환경을 측정하는 도구 중 HOME에 대한 타당화 연구는 이은혜와 장영애(1982), 장영애(1984)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들에 대한 예비조사가 실시되었다. 사회성숙도 검사는 4세에서 8세 아동을 가진 부모 20명에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참고로 분향을 수정하였다. 취학전 아동용 검사인 사회성서적 발달 평정척도는 유치원 교사 5명의 의견을 참고로 분향을 수정하였고, 같은 아동을 담당하는 2명의 교사가 2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평정한 자료로 평정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용 사회성서적 발달 평정척도는 4명의 교사들의 의견을 기초로 분향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1986년 6월 20일부터 7월 30일에 걸쳐 이루어 졌는데 부모와 교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먼저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 중 사회성숙도 검사는 부모와의 면접에 의해 자료가 수집되었고, 사회

성서적 발달척도는 교사의 평정에 의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또한 부모용 도구인 HOME과 사회인구론적 빈인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는 부모와의 면접에 의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상의 자료 수집은 각 유치원, 유아원과 국민학교에서 본 연구자와 검사 실시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가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인 5명의 면접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로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Pearson r을 구했으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유의있게 예언해 주는 변인을 밝히기 위해서 아동의 연령별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정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 분석

가정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I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가정환경 변인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가정환경 변인간의 상관계수

변인	4세 (n=80)	6세 (n=80)	8세 (n=80)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	.42 **	.49 **	.21 *
발달을 위한 자극	.56 **	.51 **	.25 *
언어적 환경	.44 **	.40 **	.19 *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정도 및 허용성	.36 **	.48 **	.27 **
독립성의 육성	.26 *	.49 **	.30 **
정서적 분위기	.27 **	.24 *	.28 **
경험의 다양성	.48 **	.50 **	.27 **
환경의 물리적 측면	.43 **	.52 **	.28 **
놀이 자료	.67 **	.59 **	.21 *
HOME 총점	.64 **	.63 **	.31 **
부모교육 수준	.61 **	.59 **	.17
가정경제 수준	.56 **	.53 **	.14

* $p < .05$ ** $p < .01$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는 4세와 6세 아동의 경우는 모두 유의있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 8세 아동의 경우는 HOME 변인뿐만 아니라 유의있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는 대체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사회인구론적 변인보다 HOME 변인이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Ⅱ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2) 가정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중다회귀 분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유의있게 예언해 주는 변인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Ⅱ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에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6 〉 4 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예언하는 가정환경 변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N = 80)

변	인	R	R ²	R ² 증가량	F
놀이자료		.66989	.44875	.44875	63.50 **
가정경제 수준		.72238	.52183	.07308	11.77 **
부모교육 수준		.73304	.53735	.01552	2.55
환경의 물리적 측면		.75717	.57331	.01446	2.51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		.76443	.58436	.01105	1.94
정서적 분위기		.76934	.59188	.00753	1.23
발달을 위한 자극		.77698	.60370	.01182	2.12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정도 및 허용성		.78034	.60894	.00524	.94
경험의 다양성		.78163	.61094	.00201	.36
언어적 환경		.78208	.61165	.00071	.12

** p < .01

〈 표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예언해 주는 중요한 가정환경 변인은 놀이자료, 가정경제 수준, 부모교육 수준, 환경의 물리적 측면,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의 순이었다. 이중 놀이자료가 45% 정도의 예언량을 나타냈고, 가정경제 수준이

7% 정도를 첨가시켰으며, 나머지 변인이 예언량을 조금씩 첨가시켜 5개 변인이 58% 정도의 예언량을 나타냈다. 또한 그외의 변인도 예언량을 조금 첨가시켜 가정환경 변인 모두가 61% 정도의 예언량을 나타냈다.

〈 표 7 〉 6 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예언하는 가정환경 변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N = 80)

변	인	R	R ²	R ² 증가량	F
부모교육 수준		.59298	.35162	.35162	42.30 **
독립성의 육성		.63855	.40775	.05613	7.30 **
놀이자료		.67288	.45277	.04502	6.25 *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		.68402	.46789	.01512	2.13
정서적 분위기		.69567	.48396	.01607	2.30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 및 허용성		.71915	.51717	.03322	5.02 *
언어적 환경		.71972	.51800	.00082	.12
환경의 물리적 측면		.72012	.51857	.00057	.08
경험의 다양성		.7222	.52160	.00038	.05

* p < .05

** p < .01

6세 아동의 경우는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예언하는 중요 변인은 부모교육 수준, 독립성의 육성, 놀이자료,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 정서적 분위기의 순이었다. 이중 부모교육 수준이 35% 정도의 예언량을 나타냈으며, 독립성의 육성이 6% 정도를 첨가시키고 놀이자료가 5% 정도를 첨가시켰으며, 나머지 변인이 예언량을

조금씩 첨가시켜 5가지 변인이 모두 48% 정도의 예언량을 나타냈다. 한편 전체 가정환경 변인 모두는 52% 정도의 예언량을 나타냈다.

8세 아동의 경우는 <표8>에 나타난 바와 같은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중요하게 예언해 주는 변인은 독립성의 육성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환경의 물리적 측면,

< 표 8 > 8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예언하는 가정환경 변인의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N = 80)

변 인	R	R ²	R ² 증가량	F
독립성의 육성	.30195	.09117	.09117	7.82**
환경의 물리적 측면	.33461	.11196	.02079	1.80
가정경제 수준	.34916	.12191	.00995	.33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	.36547	.13357	.01165	1.01
경험의 다양성	.86869	.13593	.00237	.20
놀이자료	.37344	.13946	.00352	.30
언어적 환경	.37780	.14273	.00327	.27
정서적 분위기	.38137	.14545	.00271	.23
발달을 위한 자극	.38232	.14617	.00072	.06
부모교육 수준	.38258	.14637	.00020	.01

** p < .01

가정경제 수준,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 경험의 다양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독립성의 육성이 9% 정도의 예언량을 나타냈고, 환경 물리적 측면이 2% 정도를 첨가시켰으며, 나머지 변인이 모두 들어갔을때 14% 정도의 예언량을 나타냈다. 또한 가정환경 변인 전체는 약간의 예언량을 첨가시켜 모두 15% 정도의 예언량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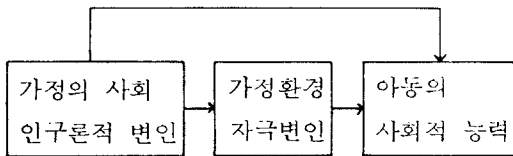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때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의의있게 예언해 주는 가정환경 변인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Ⅱ는 긍정되었다.

Ⅲ. 연 구 Ⅱ

1. 연구 내용

연구Ⅱ에서는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환경변인간의 개념적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험적 자료에 입각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한 다음 인과모형을 수정하고, 이러한 인과모형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비교, 분석한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가정환경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으며, 기본모형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변인들을 포함시켜 개념적 인과모형을 설정한 것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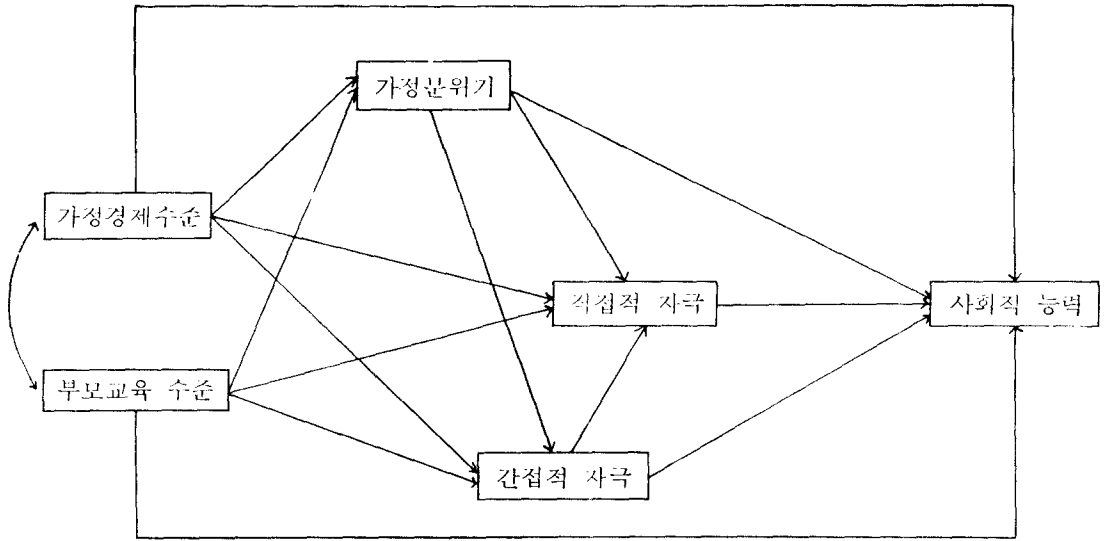
(그림 1) 기본 모형

위의 <그림 1>에서 설정한 모형은 연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인구론적 변인이 가정환경 자극변인에 영향을 미치며, 가정환경 자극변인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사회 인구론적 변인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

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그림 2>의 인과모형은 <그림 1>의 인과 모형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인데 사회인구론적 변인에는 가정경제 수준, 부모교육 수준, 두 변인이 선정되었으며 가정환경 자극변인에는 직접적 자극, 간접적 자극, 가정분위기 세 변인을 선정하였다. 이 세 변인은 앞의 연구Ⅰ의 HOME 변인들을 이은혜와 장영애 (1982), 장영애(1984) 등의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공동의 특성을 가진 세 변인으로 묶은 것이다.

위와같은 모형은 Bradley와 Caldwell (1976, 1980), Walberg와 Marjoribanks (1973), Elardo, Bradley와 Caldwell (1975) 등과 Bradley, Caldwell과 Elardo (1979) 등의 연구 결과를 참고로 설정한 것이다.



(그림 2) 가정 환경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개념적 인과 모형

2. 연구 방법

연구Ⅱ에서 사용한 자료는 앞의 연구Ⅰ에서 사용한 자료와 동일하다. 연구Ⅱ의 자료로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인과 분석을 위해 앞에서 설정된 인과모형, 즉 행로모형(Path model)에 근거하여 각 변인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종속변인과 그 종속변인에 작용하는 독립변인들을 회귀분석 하였다. 회귀분석으로 얻은 회귀계수로 행로분석(Path analysis)의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때 각 변인들의 변량을 4세, 6세, 8세 연령별로 비교해본 결과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변량의 차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표준화 회귀계수(β)를 행로계수로 사용하였다. 행로분석의 방법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련된 변인들의 인과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인과모형을 수정한 다음 수정된 인과모형의 타당성 여부를 상관계수를 재생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Q를 산출한 다음 χ^2 검증을 하는 방법을 통해 검토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가정환경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인 연구Ⅱ의 결과를 회귀분석, 인과분석, 인과모형의 수정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회귀분석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본

연구의 인과모형 속에 들어간 각 변인들의 상호상관 계수를 각 연령별로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9>와 같다.

<표9>에 제시된 바와 같이 4세와 6세 아동의 경우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가정환경

변인간에는 대부분 .300이상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고, 8세 아동의 경우도 가정경제 수준, 부모교육 수준 두변인과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5% 이상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표9>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련된 변인들의 상호 상관 계수

연령	변인	가정경제수준	부모교육수준	가정분위기	간접적 자극	직접적 자극
4세 (n=80)	가정 경제 수준	1.000				
	부모 교육 수준	.701 **	1.000			
	가정 분위기	.499 **	.352 **	1.000		
	간접적 자극	.596 **	.628 **	.557 **	1.000	
	직접적 자극	.557 **	.618 **	.551 **	.763 **	1.000
	사회적 능력	.561 **	.605 **	.377 **	.542 **	.695 **
6세 (n=80)	가정 경제 수준	1.000				
	부모 교육 수준	.776 **	1.000			
	가정 분위기	.435 **	.516 **	1.000		
	간접적 자극	.721 **	.743 **	.668 **	1.000	
	직접적 자극	.673 **	.732 **	.601 **	.859 **	1.000
	사회적 능력	.533 **	.593 **	.347 **	.624 **	.613 **
8세 (n=80)	가정 경제 수준	1.000				
	부모 교육 수준	.789 **	1.000			
	가정 분위기	.460 **	.465 **	1.000		
	간접적 자극	.699 **	.655 **	.755 **	1.000	
	직접적 자극	.741 **	.671 **	.697 **	.884 **	1.000
	사회적 능력	.139	.172	.274 **	.323 **	.248 **

* p < .05

** p < .01

고 있었다.

다음에는 본 연구에서 미리 설정한 인과모형에 따라 각각의 종속변인과 이 종속변인들

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된 독립변인들을 순서대로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독립변인의 투입 순서는

해당 각 종속변인에 가장 근접한 원인으로 가정한 변인으로 부터 시작하여 점차 먼 원인으로 판단된 변인의 순서로 독립변인들을 투입시키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먼저 4세 아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

음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세 아동의 경우 가정분위기는 외인성 변인인 부모교육 수준과 가정경제 수준에 의해 20% 정도가 설명되며, 간접적 자극은 가정분위기, 부모교육 수준, 가정경제 수준에 의해 54% 정도가

< 표 10 > 4세 아동의 인과모형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N = 80)

종속 변인	독립 변인	R	R ²	R ² 증가량	F
가정분위기	부모교육수준	.35220	.12405	.12405	11.05**
	가정경제수준	.45233	.20461	.08056	7.80**
간접적 자극	가정분위기	.55654	.30974	.30974	35.00**
	부모교육수준	.72309	.52286	.21312	34.39**
	가정경제수준	.73221	.53613	.01327	2.17
직접적 자극	간접적 자극	.76313	.58237	.58237	108.77**
	가정분위기	.77801	.60529	.02292	4.47*
	부모교육수준	.79790	.63664	.03135	6.56*
	가정경제수준	.79797	.63675	.00010	.02
사회적 능력	직접적 자극	.69540	.48358	.48358	73.04**
	간접적 자극	.69561	.48387	.00029	.04
	가정분위기	.69570	.48400	.00012	.02
	부모교육수준	.73249	.53654	.05254	8.50**
	가정경제수준	.74189	.55040	.01386	2.28

* p < .05

** p < .01

설명되었다. 직접적 자극은 간접적 자극, 가정분위기, 부모교육 수준의 세변인이 64% 정도를 설명하고, 여기에 가정경제 수준이 첨가되었을때 예언량을 증가시키지 못했다. 한

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직접적 자극에 의해 48%가 설명되었고 부모교육 수준이 5% 정도를 첨가시켰으며, 나머지 변인들은 적은 예언량을 나타내 5가지 변인이 모두 55% 정

도의 예언량을 나타냈다.

〈 표 11 〉 6세 아동의 인과모형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N = 80)

종속 변인	독립 변인	R	R ²	R ² 증가량	F
가정분위기	부모교육수준	.51565	.26590	.26590	28.25 **
	가정경제수준	.51872	.26907	.00317	.33
간접적 자극	가정분위기	.66776	.44590	.44590	62.77 **
	부모교육수준	.81368	.66208	.21618	49.26 **
	가정경제수준	.83978	.70523	.04315	11.13 **
	간접적 자극	.85933	.73844	.73844	220.21 **
직접적 자극	가정분위기	.86007	.73973	.00129	.38
	부모교육수준	.87124	.75905	.01932	6.10 *
	가정경제수준	.87130	.75906	.00010	.03
	직접적 자극	.61267	.37537	.37537	46.87 **
	간접적 자극	.64154	.41158	.03621	4.74 *
	가정분위기	.65005	.42256	.01098	1.45
사회적 능력	부모교육수준	.66966	.44845	.02589	3.52
	가정경제수준	.66971	.44851	.00006	.01

* p < .05

** p < .01

6세 아동의 인과모형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는 〈 표 11 〉에 제시된 바와 같은데, 먼저 가정분위기는 외인성 변인중 대부분 부모교육 수준에 의해 설명되어 27% 정도의 설명량을 나타냈으며, 가정경제 수준은 예언량을 첨가시키지 못했다. 간접적 자극은 가정분위기, 부모교육 수준, 가정경제 수준 세변인에 의해 71% 정도가 예언되었다. 한편 직접적 자극은 간접적 자극에 의해 대부분 예언되어 74

%의 예언량을 나타내고 있었고 나머지 변인들이 약간의 예언량을 첨가시켜 네변인이 모두 투입되었을때 76%의 예언량을 나타냈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직접적 자극에 의해 38% 정도가 설명되고, 간접적 자극에 의해서는 4% 정도가 첨가되었다. 역시 나머지 세변인은 매우 적은 예언량을 나타내 5가지 변인이 모두 투입되었을때 총 45%의 예언량을 나타냈다.

〈표 12〉 8세 아동의 인과모형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N = 80)

종속변인	독립변인	R	R ²	R ² 증가량	F
가정분위기	부모교육수준	.46470	.21594	.21594	21.48 **
	가정경제수준	.48882	.23894	.02300	2.33
간접적 자극	가정분위기	.75526	.57042	.57042	103.57 **
	부모교육수준	.82979	.68854	.11812	29.20 **
직접적 자극	가정경제수준	.85624	.73315	.04460	12.70 **
	간접적 자극	.88416	.78173	.78173	279.36 **
사회적 능력	가정분위기	.88529	.78375	.00201	.72
	부모교육수준	.89392	.79909	.01535	5.81
사회적 능력	가정경제수준	.90382	.81688	.01779	7.29 **
	직접적 자극	.24763	.06132	.06132	5.10 *
	간접적 자극	.33332	.11110	.04978	4.31 *
	가정분위기	.33767	.11402	.00292	.25
사회적 능력	부모교육수준	.33878	.11477	.00075	.06
	가정경제수준	.35051	.12285	.00808	.68

* p < .05

** p < .01

8세 아동의 인과모형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은데 〈표 12〉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정분위기는 부모교육 수준에 의해 22% 정도가 예언되었고 가정경제 수준은 2%를 첨가시켜 이 두변인에 의해 24%가 설명되고 있었다. 간접적 자극은 가정분위기, 부모교육 수준, 가정경제 수준 세변인에 의해 73% 정도가 설명되고 있었다. 또한 직접적 자극은 간접적 자극에 의해 대부분 설명되어 78%의 예언량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세변인이 4%의 예언량을

첨가시켜 82% 정도가 네변인에 의해 예언되었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직접적 자극에 의해 6%가 설명되고, 간접적 자극에 의해서는 5% 정도가 첨가되었으며 나머지 변인은 극히 적은 양의 예언량을 나타내 총 12%가 다섯가지 변인에 의해 설명되었다.

2) 인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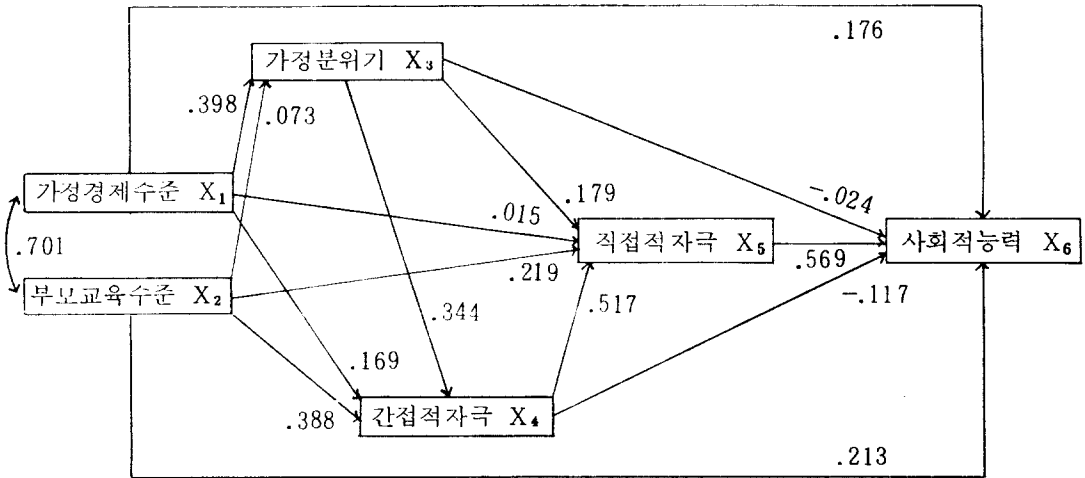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에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련된 몇가지 변인들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의 분석 결과

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본 연구의 행로모형에 포함된 각 변인들 사이의 가능한 모든 행로를 연결시키고 행로계수(Path coefficient)를 산출하였는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련된 가정환경 변인의 인과모형을 4세, 6세, 8세 아동의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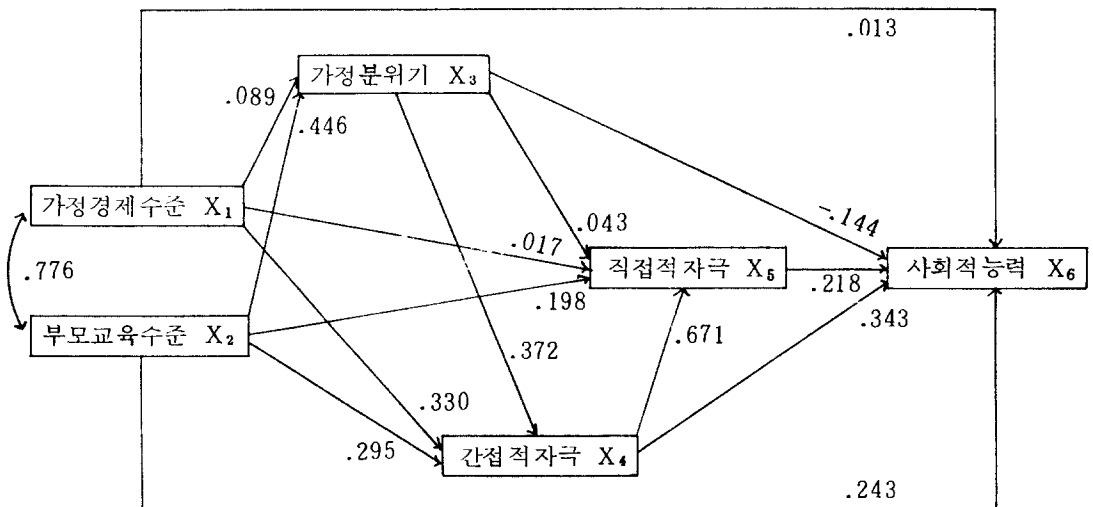
3 >과 같다.

< 그림 3 >에서 보는바와 같이 4세 아동의 경우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보면 직접적 자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569), 다음이 부모교육 수준 (.213) 가정경제 수준 (.176) 순이었다. 간접적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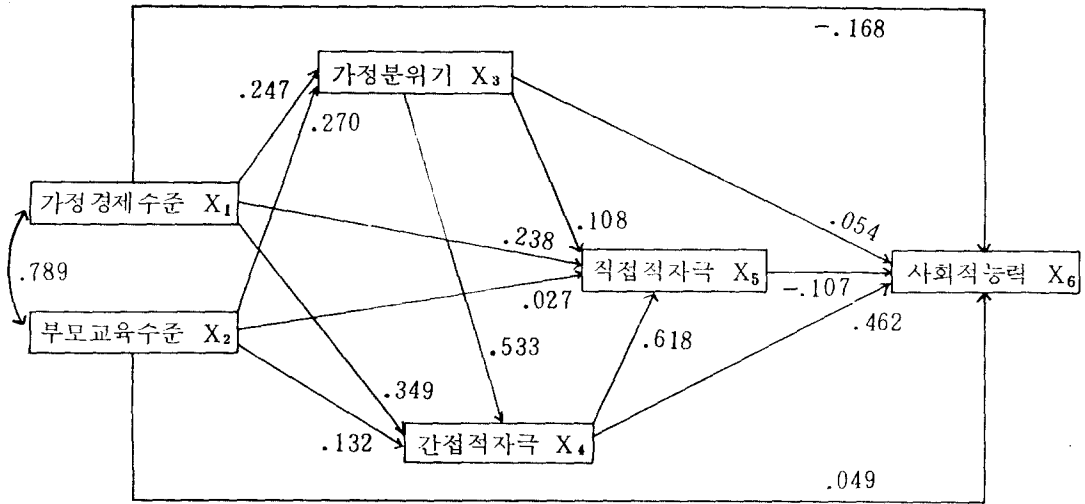
< 4 세 >



< 6 세 >



< 8 세 >



(그림 3)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련된 변인들의 인과모형 I

극과 가정분위기는 부적인 행로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가정분위기는 미약한 행로를 나타내고 있었다. 각변인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직접, 간접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 표 13 > 과 같다.

< 표 13 > 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가정경제 수준과 부모교육 수준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컸지

만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직접적 자극은 상당히 높은 직접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가정분위기와 간접적 자극은 직접 영향은 부적이었으나 간접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고 상당한 정도의 의사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가정분위기와 간접적 자극이 나타내는 상관은 실제 상관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다른 변인 때문에

< 표 13 > 4세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각 변인간의 상관도의 분할 (N = 80)

변 인	단순상관계수	원 인		비 원 인 (의사상관)
		직 접	간 접	
가 정 경 제 수 준	.561	.176	.385	—
부 모 교 육 수 준	.605	.213	.392	—
가 정 분 위 기	.377	— .024	.163	.238
간 접 적 자 극	.542	— .117	.294	.365
직 접 적 자 극	.695	.569	—	.126

허구적으로 생기는 의사상관이라 할 수 있다.

6세 아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간접적 자극이 $P = .343$ 으로 가장 높은 행로계수를 나타냈고, 부모교육 수준과 직접적 자극이 각각 $P_{62} = .243$, $P_{65} = .218$ 의 행로계수를 나타냈다. 한편 가정

분위기는 부적인 계수를 나타냈고, 가정경제 수준의 행로는 미약했다. 6세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각 변인간의 상관도를 분할한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 표 14 > 6세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각 변인간의 상관도의 분할 (N = 80)

변 인	단순상관계수	원 인		비 원 인 (의사상관)
		직 접	간 접	
가정 경제 수준	.533	.013	.520	-
부모 교육 수준	.593	.243	.350	-
가정 분위기	.347	-.144	.191	.300
간접적 자극	.624	.343	.146	.135
직접적 자극	.613	.218	-	.395

<표 14>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정경제 수준은 거의 대부분 간접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쳤고, 부모교육 수준과 간접적 자극은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직접적 자극은 직접적인 영향도 나타냈지만 상당히 높은 의사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러한 의사상관은 가정분위기에서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즉, 가정분위기의 경우 약간의 간접 영향을 제외한 나머지가 실제 상관인 아니라 다른 변인 때문에 허구적으로 나타나는 의사상관이라 할 수 있고, 직접적 자극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반이상이 의사상관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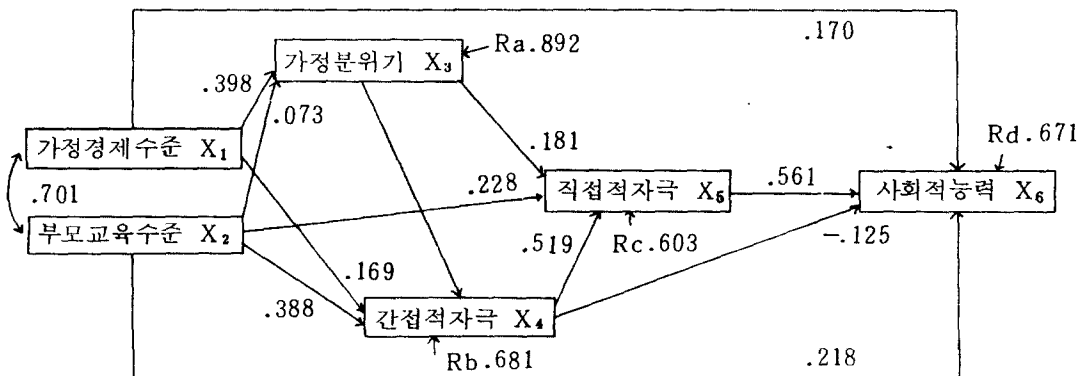
8세 아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간접적 자극이 $P_{64} = .462$ 로 매우 높은 행로계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직접적 자극이나 가정경제 수준은 부적인 행로계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가정분위기와 부모교육 수준의 행로는 미약했다. 각 상관계수를 직접, 간접 영향으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 표 15 > 8세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각 변인간의 상관도의 분할 (N = 80)

변인	단순상관계수	원인		비원인 (의사상관)
		직접	간접	
가정경제수준	.139	-.168	.307	-
부모교육수준	.172	.049	.123	-
가정분위기	.274	.054	.199	.021
간접적 자극	.323	.462	-.066	-.066
직접적 자극	.248	-.107	-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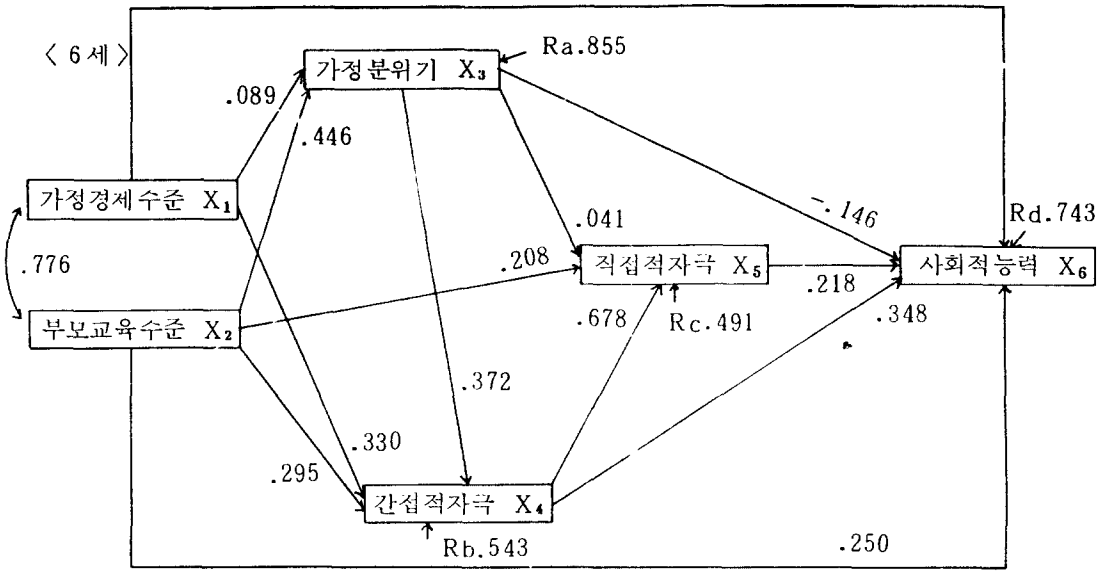
< 표 15 >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정경제 수준은 대부분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교육 수준과 가정분위기의 직접 영향은 미약했고, 약간의 간접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간접적 자극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쳤고, 직접적 자극은 높은 의사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직접적 자극의 경우 실제 상관계수 보다 더 높은 의사 상관을 나타내므로, 직접적 자극이 나타내는 상관은 모두 다른 변인 때문에 허구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 4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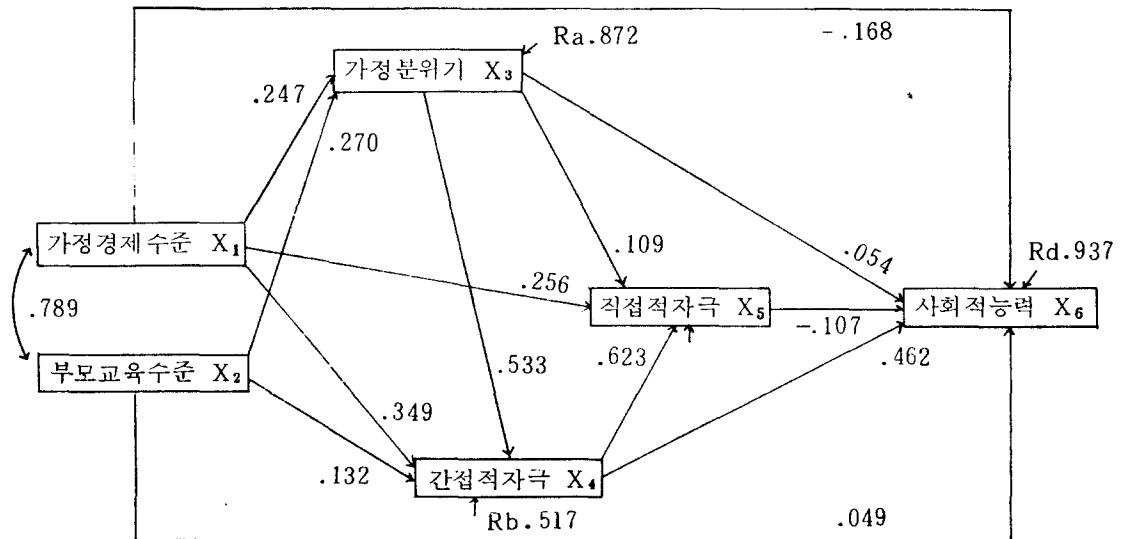


3) 인과모형의 수정

전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개념적 인과모형에 기초하여 모형내에 포함된 각 변인들 간의 행로를 모두 연결시켜 그 행로계수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인 행로분석의 결과 어떤 행로는 그 영향력을 무시하여도 괜찮을 만큼 매우 미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면과 실제 원자료와의 일치여부를 고려해서 임의적으로 행로계수가 .040 미만이 되는 행로를 삭제하기로 하고 처음의 각 인과모형들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인과모형을 연령별로 제시하면 다음 < 그림 4 >와 같다.



< 8 세 >



(그림 4)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련된 변인들의 인과모형 II

<그림 4>에서 보는바와 같이 4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모형에서는 P₅₁, P₆₃ 두 행로가 삭제되었으며, 6세 모형에서는 P₅₁ 과 P₆₁ 두행로가, 8세 모형에서는 P₅₂행로가 삭제되었다. 모형 II에 표시된 행로계수는 새로운 모형에 기초하여 다시 산출한 것이며 역시 각 변인에 대한 잔여변량이 산출되었다.

수정된 인과모형들이 본래의 모형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두가지 방법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하나의 방법은 새로운 모형에 표시된 행로계수를 사용하여 각 변인간의 상호상관 계수를 재생한후 그 차이가 어느정도 인가를 검토하

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본래의 인과모형과 수정된 인과모형에서 각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에 대해 예언하는 중다상관 계수를 이용해 검토해 보는 방법이다. 이 두가지 방법중 첫번째 방법인 각 변인간의 상호상관 계수를 재생한 결과를 알아보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에서 보면 재생된 상관계수는 본래의 상관계수와 .001에서 .015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상관계수가 .050 미만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원자료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 좀더 단순한 인과모형을 설정해도 무리는 없다고 본다.

< 표 16 > 인과모형내 각 변인간 원형 및 재생된 상호상관 행렬표

연령 변인	가정경제수준	부모교육수준	가정분위기	간접적 자극	직접적 자극
	1.000				
4세	부모 교육 수준 (.701)	.701 1.000			
(n=80)	가정 분위기 (.449)	.449 (.352)	.352 1.000		
	간접적 자극 (.596)	.596 (.627)	.628 (.557)	.557 1.000	
	직접적 자극 (.557)	.557 (.617)	.618 (.550)	.551 (.763)	.763 1.000
	사회적 능력 (.561)	.561 (.605)	.605 (.392)	.377 (.541)	.542 (.695)
	가정경제 수준	1.000			
6세	부모 교육 수준 (.776)	.776 1.000			
(n=80)	가정 분위기 (.435)	.435 (.515)	.516 1.000		
	간접적 자극 (.721)	.721 (.743)	.743 (.668)	.668 1.000	
	직접적 자극 (.673)	.673 (.733)	.732 (.601)	.601 (.859)	.859 1.000
	사회적 능력 (.533)	.533 (.594)	.593 (.346)	.347 (.623)	.624 (.613)
					.613 (.612)

연령	변인	가정경제수준	부모교육수준	가정분위기	간접적자극	직접적 자극
8세 (n=80)	가정 경제 수준	1.000				
	부모 교육 수준	.789 (.789)	1.000			
	가정 분위기	.460 (.460)	.465 (.465)	1.000		
	간접적 자극	.699 (.698)	.655 (.655)	.755 (.755)	1.000	
	직접적 자극	.741 (.741)	.671 (.661)	.697 (.697)	.884 (.884)	1.000
	사회적 능력	.139 (.139)	.172 (.173)	.274 (.274)	.323 (.323)	.248 (.247)

()속의 계수는 재생된 상관계수임.

두번째 방법인 본래의 인과모형과 수정된 인과모형에서 각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에 대해 예언하는 중다상관계수를 비교해 보면 4세, 6세, 8세 모형에서 중다상관계수 자체에 변화가 없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때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수정된 모형들은 원자료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모형인 <그림 4>를 중심으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① 4세 아동의 경우: 가정분위기는 주로 가정경제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간접적 자극은 부모교육 수준, 가정분위기, 가정경제 수준의 순으로 영향을 받았다. 직접적 자극은 간접적 자극, 부모교육 수준, 가정분위기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았으며 가정경제 수준에 의해서는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편 사회적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직접적 자극, 부모교육 수준, 가정경제 수준의 순이었으며, 간접적 자극과 가정분위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4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55% 정도 설명하고 있었으며 45%는 기타 요인에 의해 설명되었다.

② 6세 아동의 경우: 가정분위기는 주로 부모교육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간접적 자극은 가정분위기, 가정경제 수준, 부모교육 수준의 순으로 직접 영향을 받았다. 직접적 자극은 간접적 자극, 부모교육 수준, 가정분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가정경제 수준에 의해서는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았다. 사회적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변인은 간접적 자극, 부모교육 수준, 직접적 자극 등이었으며, 가정분위기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가정경제 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6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45% 정도 설명하고 있었고 55%는 기타 요인에 의해 설명되었다.

③ 8세 아동의 경우 : 가정분위기는 부모 교육 수준과 가정경제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간접적 자극은 가정분위기, 가정경제 수준, 부모교육 수준의 순으로 영향을 받았다. 직접적 자극은 간접적 자극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았고 가정경제 수준과 가정분위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으나 부모교육 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사회적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보면 간접적 자극, 가정분위기, 부모교육 수준 등이었으며, 직접적 자극과 가정경제 수준은 부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본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8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12% 정도 설명하였고 88%는 기타 요인에 의해 설명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적게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즉 4세때는 55% 정도를 설명하던 것이 6세때는 45%, 8세때는 12% 정도만을 본 연구의 인과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직접적 자극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다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간접적 자극의 영향이 커짐을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인구론적 변인중에서는 가정경제 수준보다 부모교육 수준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따라 얻어진 결과들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4세와 6세 아동의 경우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나, 8세 아동의 경우는 HOME 변인과만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낸다.

2)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의의있게 예언해주는 가정환경 변인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4세의 경우는 놀이자료, 가정경제 수준, 부모교육 수준이 중요한 변인이고, 6세의 경우는 부모교육 수준, 독립성의 육성, 놀이자료가, 8세의 경우는 독립성의 육성, 환경의 물리적 측면, 가정경제 수준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3)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의 개념적 인과모형은 부모교육 수준과 가정경제 수준을 외인성 변인으로 하고, 직접적 자극, 간접적 자극, 가정분위기를 내인성 변인으로 하여 선정된다. 즉,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에서 제공하는 직접적 자극이고, 이러한 직접적 자극은 다시 가정내의 간접적 자극과 가정분위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변인은 다시 가정경제 수준과 부모교육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4)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환경변인간의 인과모형을 분석한 결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결정하는 주요변인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연령이 어릴수록 직접적 자극이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간접적

자극의 영향이 커지고, 사회인구론적 변인중에서는 부모교육 수준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정환경 변인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예언하는 예언량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한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복합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아동의 환경을 측정하고, 다양한 변인을 통해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검토하는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중다측정 중다시간계열 행로모델(multiple measure-mutiple time series path model)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가정환경을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

셋째,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구의 폭을 넓혀 초기의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연령에 따른 변화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다룬 환경변인 이외에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을 포함시켜 또 다른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그 관계를 좀더 다각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동의 사회적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발달특성 측면에서도 가정환경과의 관계가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모. (1969). 서울시의 사회계층과 계급구조에 관한 연구. 김재원 박사 회갑기념 논총, 서울: 을유문화사, 603-630.
- 이규성, 김정희, 이성진. (1976). 한국 아동의 사회적 행동 발달. 행동과학연구 9(7),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이 영. (1980). 3세이하 어린이의 가정환경과 발달수준과의 관계. 연세논총, 17, 249-264.
- 이 영. (1985). 0~3세용 가정환경자극검사(HOME)의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연세논총, 21, 379-397.
- 이은해. (1985). 아동연구방법. 서울: 교문사.
- 이은해, 장영애. (1982). 가정환경자극검사(HOME)의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2, 49-63.
- 이은해, 조진형. (1984). 취학전 아동의 인지양식에 관한 일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22(2), 133-142.
- 이종승. (1981). 학업성취에 관련된 변인의 한 인과분석. 교육학연구, 3, 109-118.
- 이종승. (1985). 행로분석의 방법. 교육발전논총, 7, 53-77.
- 장영애. (1981). 가정환경 변인과 4~6세 아동의 언어능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애. (1984). 가정환경 자극검사(HOME)의 타당화 연구-국민학교 저학년용. 대한 가정학회지, 22(4), 173-182.
- 장영애, 서용선(1983). 가정환경 자극검사

- (HOME)와 학령전 아동의 발달수준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4, 1-10.
- Altman, I., & Wohlwill, F.J. (1978). Children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Plenum.
- Anastasi, A. (1982). Psychological testing. New York: MacMillan.
- Asher, H.B. (1976). Causal modeling. Beverly Hills: Sage.
- Bradley, R.H. & Caldwell, B.M. (1976). The relation of Infants' home environments to mental test performance at fifty-four months: A follow-up study. Child Development, 47, 1172-1174.
- Bradley, R.H. & Caldwell, B.M. (1980). The relation of home environment, cognitive competence and IQ among males and females. Child Development, 51, 1140-1148.
- Bradley R.H. & Caldwell, B.M. (1984). The HOME inventory and family demographics. Developmental Psychology, 20(2), 315-320.
- Bradley, R.H. & Caldwell, B.M. (1984). The relation of infants' home environments to achievement test performance in first grade: A follow-up study. Child Development, 55, 803-809.
- Bradley, R.H., Caldwell, B.M., & Elardo, R. (1979). Home environ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the first 2 years: A cross-lagged pane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5(3), 246-250.
- Caldwell, B.M., & Bradley, R.H. (1979).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Arkansas, AR.
- Conger, R.D., McCarty, J.A., Yang R. K., Lahey, B.B., & Kropp, J.P. (1984). Perception of child, child-rearing values, and emotional distress as mediation links between environmental stressors and observed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2234-2247.
- Elardo, R., Bradley, R., & Caldwell, B.M. (1975). The relation of infants home environment to mental test performance from six to thirty six months: A longitudin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46, 71-76.
- Elardo, R., Bradley, R., & Caldwell, B.M. (1977). A longitudinal study of

- the relation of infants home environments to language development at age three. Child Development, 48, 595-603.
- Gewirtz, J.L. (1969). Mechanisms of social learning. D.A. In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pp.57-212). Chicago : Rand McNally.
- Hardy-Brown, K, Plomin, R., & DeFries, J.C. (1981).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the rate of communicative development in the first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17(6), 704-717.
- Hess, R.D., Holloway, S.D., Dickson, W.P., & Price, G.G. (1984). Maternal variables as predictors of children's school readiness and later achievement in vocabulary and mathematics in sixth grade. Child Development, 55, 1902-1912.
- Hess, R.D., & Shipman, V.C. (1965). Family experience and the socialization of cognitive mode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36, 869-886.
- Jeffers, W.V. & Lore, K.R. (1979). Let's play at my house : Effects of the home environment on the social behavior of children. Child Development, 50, 837-841.
- Johnson, J.E., & McGillicuddy-Delisi, A. (1983). Family environment factors and children's knowledge of rules and conventions. Child Development, 54, 218-226.
- Li, C.C. (1975). Path analysis : A primer. Pacific Grove, CA : Boxwood.
- McKinnon, C.E., Brody, G.H., & Stoneman, Z. (1982). The effects of divorce and maternal employment on the home environments of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1392-1399.
- Rogasa, D. (1979). Causal models in longitudinal research : Rationale, formulation, and interpretation. In J.R. Nesselrode & P.B. Baltes (Eds.), Longitudinal research in the study of behavior and development (pp.263-302). New York : Academic Press.
- Sameroff, A.J., & Seifer, R. (1983). Familial risk and child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4, 1254-1268.

Wachs, T.D., & Mariotto, M.J.(1978).
Criteria for the assessment of
organism–environment correlation
in human developmental studies.
Human Development, 21, 268–288.

Walberg. H., & Marjoribanks, k.(1973).
Differential mental abilities and
home environment: A canonic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9, 363–368.